

골퍼들의 ‘드림 아일랜드’ 세이지우드CC 여수경도



1, 2 아일랜드 골프장 '세이지우드CC 여수경도' 전경

전남 여수 하면 전국적인 관광 명소인 ‘여수 밤바다’를 떠올리는 이가 많겠지만, 골퍼들에게 여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섬 하나가 골프 코스로 조성된 세이지우드CC 여수경도이다.

한려수도 끝자락이자 남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경도CC는 연평균 기온이 14.6°C로 따뜻하고 강수량이 적어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덕분에 겨울에도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모든 흠에서 바다가 보이는 360도 회전 코스로 조성된 국내 첫 아일랜드 골프장으로 돌산도, 금오도, 오동도 3개 코스에 27홀로 구성됐다.

해송 숲과 바다를 넘나드는 경관 변화가 뚜렷한 돌산도 코스는 골프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남해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있는 금오도 코스는 골퍼들의 승리욕과 흥미를 자극하기 충분하다. 완만한 구릉과 다도해를 배경으로 정확한 거리를 요구하는 오동도 코스까지 27홀 홀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골프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DMK골프디자인의 데이비드 맥레이 키드가 코스 디자인에 참여했다. 섬 코스의 장점을 살린 코스로 티 샷을 할 때

는 바다를 향해, 두 번째 샷을 할 때는 바다에 떠 있는 그린을 공략하며 바다를 정복한 기분을 갖게 하는 콘셉트로 설계했다.

경도CC는 ‘따뜻한 골프장’이란 테마로 1박 2일로 구성된 ‘안녕 겨울’(Hello Winter) 패키지를 선보인다. 라운드 2회와 숙박, 조식, 그리고 여수 경도의 백미인 ‘경도 힐링 세트’를 저녁으로 제공한다. 방문객들에게 여수 앞바다를 보면서 신선한 힐감과 남도 진미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추억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서울과 여수를 잇는 항공과 공항 픽업 서비스를 묶은 ‘플라이트 투 세이지우드’(A Flight To Sagewood) 패키지도 선보인다.

경도CC 관계자는 “동계시즌 내내 라운드가 가능한 여수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